

한국현대사의 이해

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7주차. 박정희(2)
3강. 몰락



학습 내용

1. 박정희 유신체제의 몰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2. 유신체제 해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학습 목표

1. 박정희 정권의 해체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에 대해 학습한다.
2. 유신체제 몰락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강 몰락





생각해 볼 문제



- 독재정권 몰락의 전제는?
- 나는 지금까지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01 들어가기 전에

- ☑ 유신헌법으로 종신집권을 보장받은 유신 군주 박정희는;
 - ➔ 1979년 10월 26일 친구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
 - ➔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
- ☑ 이런 몰락에 구조적·행위자적 요인이 동시에 작동



1] 구조적 요인

◆ 경제적 위기

✓ 개발 독재에 의한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 모델은 1977년부터 시작된 제2차 오일쇼크로 중대한 위기 직면

✓ 중화학공업화는;

- ➔ 물량 투입(input)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비용·저효율 구조
- ➔ 중화학공업 상품의 수요가 내수가 아닌, 세계시장 중심의 취약성

✓ 약탈 국가적(predatory state) 성격

- ➔ 60년대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 수출주도 산업화
- ➔ 70년대의 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 중공업 중심 수출 주도 산업화



1] 구조적 요인

◆ 경제적 위기

☑ 중화학공업의 위기 직면;

- ➡ 해외수요 격감
- ➡ 재벌이 감당해야할 비용과 손실을 중산층과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
- ➡ 이른바 비용과 위험부담의 사회화 시도
- ➡ 이 사회화의 대표적 본보기가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
- ➡ 사채업자들이 재벌 살리기의 주요 희생양
- ➡ 반면, 일반 서민 대중으로부터는 저항을 받지 않았음



1] 구조적 요인

◆ 경제적 위기

☑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비용 부담

- ➔ 중산층과 서민대중에게 전가
- ➔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는 중산층, 노동자, 서민의 비난과 저항의 대상
- ➔ 박정희의 지지 기반은 안으로부터 붕괴되기 시작



1] 구조적 요인

◆ 정치적 위기

✓ 1978년 경제적 위기의 심화가 정치적 위기로 확대

✓ 모든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확대되지 않음

✓ 이런 확대는 선거정치라는 뇌관 필요



1] 구조적 요인

◆ 정치적 위기

✓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박정희의 정책과 인권정책에 대한 민중의 불만은;

- ➡ 대도시(산업화된 중소도시를 포함하여)에서 야당(신민당) 바람
- ➡ 신민당은 집권여당을 총 득표수에서 승리

✓ 사실상의 총선승리;

- ➡ 신민당 내의 선명파(김영삼 주도)가 유화파(중도통합파, 이철승 주도)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
- ➡ 박정희의 독재에 정면 도전



1] 구조적 요인

◆ 정치적 위기

☑ 이런 정치권 내의 역학관계의 변화는

- ➔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YH 사건)
- ➔ 부산과 마산의 대규모 시위(부마민주항쟁)



1] 구조적 요인

◆ 국제적 요인

✓ 제2차 오일쇼크라는 국제 경제적 요인이 박정희 발전 모델의 토대 와해

✓ 이는 상부구조인 정치적 정통성 위기로 확대

✓ 박정희 몰락의 또 다른 구조적 요인



1] 구조적 요인

◆ 국제적 요인

☑ 더 중요한 것은 냉전의 후견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

☑ 박정희는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

- ➡ 해방 후 남로당에 가입하면서 여순사건에 연루
- ➡ 미국은 그 때부터 박정희의 사상 의심
- ➡ 이런 의심과 불신은 5·16 쿠데타 승인 과정, 민정이양, 유신정권 수립 이후 카터 행정부와와의 불화 심화



1] 구조적 요인

◆ 국제적 요인

✓ 불화 심화의 이슈는;

- ➡ 카터가 인권대통령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
- ➡ 제3세계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
- ➡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선포하면서 인권상황 악화시키고 있었음

✓ 박정희는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

- ➡ 주한미군 철수
- ➡ 반공의 보루로서의 한국의 가치 때문에 철회
- ➡ 카터와 박정희 간에는 불화와 반목 심화
- ➡ 이러한 미국과의 반목은 박정희의 대외적 정통성 훼손



1] 구조적 요인

◆ 국제적 요인

✓ 미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제적 조건은 국내정치로 침투하여 국내 행위자의 선택 변화

- ➔ 국제정치가 국내정치로 환류(feedback)
- ➔ 국내 정치의 ‘선택의 구조’(structure of choice)를 바꾸어 놓음.



2] 행위자적 요인

◆ 박정희의 선택

☑ 왜 박정희는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일련의 사태를 스스로 초래했는가?

☑ 김재규는 왜 친한 친구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가?

☑ 박정희의 죽음은 박정희의 선택이라 볼 수 있음;

- ➡ 위기에 생존을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하지 않음
- ➡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



2] 행위자적 요인

◆ 박정희의 선택

☑ 초기의 박정희는;

- ➔ 뛰어난 통치술을 가진 마키아벨리적 신군주
- ➔ 유신독재체제를 평화적으로 수립
- ➔ 1977년 제2차 오일 쇼크에서 시작되는 유신 말기에 박정희의 역량은 퇴화, 소멸
- ➔ 그는 초기에 전략적 선택가
- ➔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 전략을 구사한 유신 군주



2] 행위자적 요인

◆ 박정희의 선택

☑ 제3공화국 하에서 박정희는;

- ➡ 교수 등의 지식인 집단의 자문을 구했고
- ➡ 그들을 직접 기용하여 경제정책을 기획, 집행하게 하였음
- ➡ 3공화국은 국가와 시민사회(기업가, 기업 단체, 지식인)간의 심의(deliberation) 활발
- ➡ 이러한 심의의 과정이 박정희의 성공에 일역 담당



2] 행위자적 요인

◆ 박정희의 선택

☑ 유신 이후의 박정희는;

- ➡ 승리에 도취하였고, 시민사회와의 심의는 줄어들었고, 형식적으로 되어갔음
- ➡ 성공한 자수성가처럼 자신의 성공 사례가 계속 되리라 믿었고,
- ➡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사례 계속 고집
- ➡ 실패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실패 국가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



2] 행위자적 요인

◆ 박정희의 선택

☑ 신념이 확고한 '이데올로기적'인 강경론자

- ➔ 대화, 타협, 협상, 관용,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전략적인(strategic) 행위자인 온건론자들의 의견 무시
- ➔ 강경론은 위기 시에 박정희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비전략적이고, 맹목적(blind)인 무모한 선택

☑ 선택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행위

- ➔ 경제위기가 도래하여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 ➔ 서민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성장 일변도, 재벌 손실의 사회화 정책을 계속 강행



2] 행위자적 요인

◆ 박정희의 선택

☑️ 심각한 정치적 위기 대응에 있어 박정희 스스로가 비타협적인 강경론자

➡️ 집권층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온건론자들의 입지 축소



2] 행위자적 요인

◆ 미국 카터 대통령과의 불화

☑ 박정희의 몰락을 가져온 국제적 요인은 카터 인권대통령과의 불화

- ➔ 카터 대통령이 방한하여 인권문제 제기, 주한미군 철수 발언
- ➔ 카터에게 불만 표시

☑ 그전부터 추진해오던 핵무기개발에 박차

- ➔ 대외적으로 박정희는 전략적이지 않았음
- ➔ 일제 강점기나 해방 후 민족주의적이지 않았던 박정희는 핵무기개발을 통해 민족주의자로 거듭남
- ➔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의 불화 심화



2] 행위자적 요인

◆ 미국 카터 대통령과의 불화

☑ 대미 정책에서 반미감정에 움직이는 비전략적인 행위자;

- ➡ 일본에 대해서는 좋은 인연과 기억, 일본과의 관계는 순탄
- ➡ 미국과는 해방 정국에서부터 악연, 집권 기간 내내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었음
- ➡ 미국에 감정적·이데올로기적·비합리적 대응
- ➡ 이에 미국은 핵개발에 대해 견제와 징벌을 박정희에 부과



2] 행위자적 요인

◆ 미국 카터 대통령과의 불화

☑ 미국과의 관계악화는;

- ➔ 국내정치로 역류하여 국내정치에서 박정희의 입장을 곤궁하게 만들었음
- ➔ 대외적으로 박정희의 위치와 위상 약화
- ➔ 이에 국내정치 행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



2] 행위자적 요인

◆ 국내 정치 행위자

- ✓ 야당, 권력 핵심부 내부에서 박정희가 난공불락의 무적함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는 자도 나타났음
- ✓ 권력 계승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박정희의 총애와 지원이 아니라, 미국의 신호
- ✓ 미국이 박정희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박정희를 제거하는 거사를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근들이 생김
- ✓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미국의 신호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음



2] 행위자적 요인

◆ 국내 정치 행위자

☑ 박정희와 유신체제의 몰락은;

- ➡ 민중봉기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에 의한 것이 아님
- ➡ 집권층 내부의 쿠데타 음모 집단(coup mongers)에 의한 위로부터의 궁정쿠데타도 아님

☑ 유신체제 붕괴는 한국형 관료적 권위주의의 제도화 실패

- ➡ 유신체제는 박정희 1인에 의존하는 인치적인 권위주의주의 체제
- ➡ 따라서 박정희의 역량이 빛날 때에는 유신체제의 작동에 문제가 없었음
- ➡ 그 역량이 사라지면 권력 공백
- ➡ 권력 추구자들은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함



2] 행위자적 요인

◆ 국내 정치 행위자

1 카리스마의 일상화(routinization of charisma) 추구

- 중국공산당처럼 계승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succession)를 통해 후계자에게 점진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

2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처럼 가산주의적인 (patrimonialism) 계승 방법을 채택하여 자식에게 권력을 세습해 주는 길

- 아들 박지만은 연령 문제
- 박근혜는 육영수 여사 사후 퍼스트레이디의 역할 담당
- 1970년대 말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 대통령의 가능성 희박



2] 행위자적 요인

◆ 국내 정치 행위자

3 민주적 계승의 제도화

→ 민주화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거 경쟁의 복원



세 가지 대안 모두 박정희가 수용 불가능



2] 행위자적 요인

◆ 국내 정치 행위자

✓ 박정희는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 욕심이 강한
홉스형 인간

➡ T. Hobbes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죽음에 도달 해서야 끝나는 권력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음

➡ 박정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벗어나지 못했음

✓ 결국 박정희의 몰락과 유신체제의 붕괴는 박정희 자신의 선택의
결과



학습 정리

- ? 박정희 유신체제의 붕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조적·행위자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 박정희의 몰락은 구조적 차원에서는 경제·정치위기, 국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행위자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선택, 미국과의 불화 등이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및 읽을 거리

- 임혁백. 2012. “박정희에 대한 정치학적 평가.” 「평화연구」, 20(2): 51-84.
- 홍태영. 2018. “국민국가 건설과 민족주의적 통치성: 박정희 시대와 남한에서 국민국가 건설.” 「한국정치연구」 27(1): 1-30.

